

무덤 부장품으로 살펴본 낙랑군의 교역 양상 검토

-평양 석암리 9호분 출토품을 중심으로-

이나경 국립춘천박물관 학예연구사

I. 머리말

II. 한대漢代 교역에 관한 기존의 논의

III. 낙랑 고분 출토품의 제작지 및 유입 경위 검토

-평양 석암리 9호분 출토품을 중심으로

IV. 무덤 부장품으로 살펴본 낙랑군 교역 양상 검토

V. 맺음말

무덤 부장품으로 살펴본 낙랑군의 교역 양상 검토

-평양 석암리 9호분 출토품을 중심으로-

이나경

I. 머리말

희소한 재화에 대한 정보 교환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실제 재화의 교환, 즉 교역은 선사시대부터 이루어져 왔다. 교역이 이루어지는 지리적 범위는 재화의 종류에 따라 근거리에서 장거리까지 다양한데, 일부 지역 집단에 의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던 교역이 일정 집단이나 세력에 의해 계획적,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각 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더 커지게 되었다.

고대사회에서 교역활동은 물자교류라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 정치권력의 성장을 비롯하여 문화 변천의 중요 변수로 작용하기도 한다.¹⁾ 실제로 한국 고대의 교역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는 고대국가가 형성되는 초기철기시대를 시작으로 원삼국시대 그리고 삼국시대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고대국가가 형성 과정에서 낙랑을 경유한 한漢의 물자는 마한, 변한, 진한이 고대국가로 응집, 발전해 나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아왔다.

이러한 연구는 대체로 낙랑 지역 출토품과 유사한 삼한 지역 출토품을 추출하여 교역로나 교역 집단 등을 추정해 왔는데, 정작 한에서 낙랑으로 물자가 유입되는 과정 및 방법에 대해서는 조공무역이나 중원中原으로부터의 하사 등과 같이 지나치게 정치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단순화시켜 이해해 온 것이 대부분이다.

최근 중국에서 발견된 ‘장사오일광장동한간독長沙五一廣場東漢簡牘’ 등과 같은 후한대 간독 자료에서 동남아시아와 중국 남부지역에서 흉노 지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교역망이 존재하였음이 밝혀지고 있으나, 한의 최동단에 위치하였던 낙랑군 지역은 이러한 논의에 포함되지 못

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한과 낙랑군, 삼한 지역의 교역 양상을 살펴보는 주요 근거가 되었던 유물이 낙랑 고분 출토품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즉 평양 석암리 9호분에서 출토된 금제교구나 낙랑 고분 출토 칠기漆器 등과 같은 일부 유물이 한과 낙랑군 사이의 물자 교역 양상을 대표하면서 정치적 목적에 의한 단순한 사여 정도의 해석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다수의 낙랑고분 출토품을 소장하고 있는데, 발굴건수에 비해 출토품의 정보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북한 학계의 현황을 고려하면 이는 낙랑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료라 평가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자료조사사업’의 일환으로 평양 석암리 9호분 보고서 발간을 위해 석암리 9호분 출토품 전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낙랑 고분 출토품의 다양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기원전후 시기 낙랑군의 교역 양상을 새롭게 검토해보고자 한다.

II. 한대漢代 교역에 관한 기존의 논의

한대漢代 중국과 낙랑군을 비롯한 군현郡縣과의 구체적인 교역의 모습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자에 의해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구체적인 논의에서는 세부적인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당시 교역의 모습을 정치권력의 개입과 순수한 경제활동의 결합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이현혜는 한대 교역을 공무역公貿易과 사무역私貿易으로 구분하였다. 그에 의하면 조공朝貢과 관직 및 인수의 하사下賜, 또는 군현의 상계上計 과정에서 상당량의 물자교역이 이루어졌는데 이와 같이 정치 권력에 의해 조직되고 통제되는 ‘직접 접촉에 의한 무역’인 조공무역을 공무역이라고 보았다. 중국과의 교역에서 조공무역과 구별되는 것으로 호시互市를 통한 교역활동도 상정하였다. 이것은 정치적인 의미가 훨씬 약화된 자유로운 형식의 물자교역이지만, 낙랑·대방군의 교역에서 호시의 존재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으므로 가능성만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 상인들의 활동에 의한 교역인 사무역의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중국 상인들의 교역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후한대後漢代의 활발한 사상私商 활동으로 볼 때 낙랑지역 토착세력과 중국과의 교역에서는 오히려 내군內郡 상인을 중심으로 하는 사상의 활동 비중이 더 컸을 것이라고 보았다.²⁾ 또한 이러한 사무역은 교통수단과 신변상의 안전이 보장된 해로상의 교역항을 중

1 이현혜, 「삼한의 대외교역체계」, 『한국 고대의 생산과 교역』(서울: 일조각, 1998), p.264.

2 윤용구, 「삼한의 조공무역에 대한 일고찰-한대 낙랑군의 교역형태와 관련하여-」, 『역사학보』 162(1999); 이현혜, 앞의 책(1998), p.272.

심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조공 무역의 산물로는 정치적 권위나 지위를 상징하는 한식漢式 문물(한경漢鏡, 철제 무기 등)이, 이와 달리 사무역으로는 비단, 유리, 칠기 등과 같은 부를 과시하는 사치품이 교환된다고 보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윤용구는 낙랑과 삼한의 교섭을 중심으로, 한대 교역의 모습을 조공무역朝貢貿易과 호시무역互市貿易의 결합으로 보았다.³⁾ 즉 조공이 이루어질 때 삼한의 상인이 한 군현에 들어가서 행하는 호시를 무역으로 포함하였으며, 이는 선제대宣帝代(재위 기원전 74~49)부터 후한 안제대安帝代(재위 기원후 107~125)에 가장 활발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낙랑 호족은 삼한 등 토착사회와의 교역 업무에 참여하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고, 그것이 그들 분묘의 화려함으로 나타난다고 본 점이 주목할 만하다.

전한대前漢代 현도군玄菟郡과 고구려의 교섭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 김창석은 이들 간의 교역은 무역이라기보다 증여와 답례를 통해 상호 간의 정치적, 군사적 이득을 얻는 일종의 국가적 교환행위로 보았다.⁴⁾

이와 달리 중국의 간독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를 지속한 이성규는 상인의 활동을 강조하였다.⁵⁾ 즉 당시 수요와 공급을 담당한 것은 천하를 주유하는 상인들이었고,⁶⁾ 낙랑군에 내군의 상품을 공급하고 낙랑의 특산품을 반출한 것 역시 낙랑을 왕래한 상인들이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김병준 역시 한과의 교역에서 상인들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한의 변경 지역이었던 중국 간쑤성 둔황 쉬안취안즈[懸泉置]에서 발견된 한대 간독 자료를 토대로 앞의 의견과 달리 상인들의 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의한 한과 주변 소국 간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행무역使行貿易이라고 보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⁷⁾ 즉 한의 황제는 천하 지배라는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막대한 경비를 부담해 가며 주변의 소국들에게 조공을 재촉하였는데, 주변 세력이 이를 이용하면서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이 과정에 상인들이 이윤 추구를 위하여 사신을 자처하며 참여하였고, 이들이 변경의 호시 등에서 교역 활동

3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 의논하고 절충함’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는 ‘교섭交涉’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순수한 경제적 활동에 의한 교역이라는 의미에 비해 정치적 목적에 의한 조율과 상호 교환의 의미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용어의 사용은 낙랑군과 삼한三韓 지역간, 한반도 남부 세력과 왜倭와의 교역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어[오영찬, 「위만조선 및 낙랑군과 진변한지역의 교섭」, 『이화사학연구』 47(2013), pp.1~35], 이들의 교역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의 인식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4 김창석, 「고구려 초·중기의 對中 교섭과 교역」, 『신라문화』 24(2004), pp.91~116.

5 이성규, 「前漢 內郡과 河西 4郡 간의 交易網 形成」, 『東洋史學研究』 122(2013).

6 宋眞, 「한대 통행증 제도와 상인의 이동」, 『동양사학연구』 92(2005).

7 김병준, 「敦煌 懸泉置漢簡에 보이는 한대 변경무역 -三韓과 樂浪郡의 무역과 관련하여」, 『韓國出土外來 遺物: 初期鐵器-三國時代』(대전: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2011); 「中國古代における對外貿易のかたち -敦煌懸泉置漢簡を手掛かりとして」, 『東方學報』 91(2016), pp.550~530; 「고대 동아시아의 해양 네트워크와 사행 교역」, 『한국상고사학보』 106(2019), pp.109~136.

을 한 것으로 보았다.

고고자료를 중심으로 정치적 교섭과 경제적 무역의 관계를 살펴본 김장석과 권오영은 물자유통과 교역에는 권력이 항상 개입하고 있다고 보았다.⁸⁾ 즉 유통과 교역의 운용은 유력자들의 이득에 기여한다는 점을 전제로 해야 하며, 실질적으로는 인간의 경제행위와 관련한 요소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Ⅲ. 낙랑 고분 출토품의 제작지 및 유입 경위 검토-평양 석암리 9호분 출토품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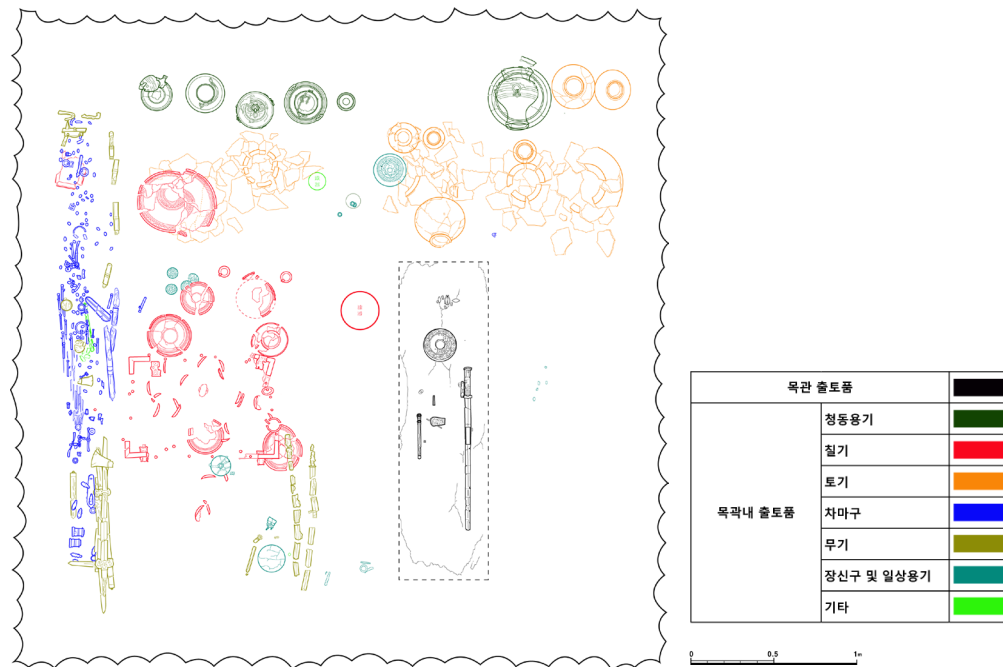
1. 평양 석암리 9호분 출토품의 종류와 특징

평양 석암리 9호분의 목관과 목곽 내부에서는 많은 수의 유물이 출토되었다(도 1). 이것을 재질별로 분류하면 금속기(금제, 은제, 금동제, 청동제, 철제)와 토기, 칠기, 옥기, 골각기, 목기로 구분할 수 있고, 용도에 따라서는 용기류(청동용기, 칠기, 토기), 차마구, 무기, 장신구, 일상용기, 기타로 분류할 수 있다. 석암리 9호분에서 출토된 유물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품 번호 본관4730~4816 및 고적품 등으로 등록·보관되고 있는데, 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한 출토수량은 93건 360점, 종류에 따라 구분한 출토수량은 100건 365점에 달한다. 현재 남아있는 유물 수량은 90건 351점이다.⁹⁾

후장厚葬의 풍습이 절정에 이르렀던 전한대에는 부장을 위해 제작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던 대부분의 물품을 무덤에 부장하는 예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전한대 제후왕묘諸侯王墓의 대표적인 예인 허베이성[河北省] 바오딩[保定] 만청한묘[滿城漢墓] 부장품은 금은용기金銀容器를 비롯하여 청동용기, 칠기, 토기(도호陶壺, 도정陶甗, 도합陶盒, 옹甕, 시루, 반盤, 분盆 등), 옥석기玉石器(옥의玉衣, 옥벽玉璧, 옥황玉璜, 옥환玉環, 옥규玉珪, 대구帶鉤, 옥규색玉窺塞, 옥인玉印, 옥패玉佩 등), 차마구(차축두, 일산살꼭지, 수레끝장식, 마면, 재갈, 교구 등), 무기(청동검, 청동노기, 청동극, 청동대, 철제장검, 철제환두소도, 철극, 철모 등), 일상용기 및 장신구(화로, 베개, 거울, 진자, 금제바늘, 띠고리 등), 방직품紡織品, 용俑, 화폐貨幣 등 매우 다양한 재질과 종류의 물품을 망라하고 있다.

8 김장석·권오영, 「물류시스템과 대외교류의 정치경제학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 『한성기 백제의 물류시스템과 대외교섭』, 한신대학교학술원 편(서울: 학연문화사, 2004), pp.31~62.

9 국립중앙박물관, 『(일제강점기 자료조사보고 30집) 평양 석암리 9호분』(2018).



도 1. 평양 석암리 9호분 유물 부장 위치

석암리 9호분에서는 세부적인 품목이나 재질, 형태의 차이는 있지만 제후왕묘급의 무덤에서 확인되는 부장품 종류의 대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조사한 낙랑 무덤 중에서 가장 다양하고 풍부한 부장품이 출토된 것으로,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학자들은 석암리 9호분의 피장자를 중원에서 파견되어 온 한의 관리인 낙랑태수樂浪太守로 상정하기도 하였다. 그에 따라 석암리 9호분 출토품과 같은 물품이 낙랑군 지역으로 유입된 원인을 정치적 목적에 의한 중원으로부터의 하사품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석암리 9호분에서 출토된 거섭居攝3년(기원후 8)명 칠반의 존재 및 중국의 한대 무덤 출토품과의 비교를 통해 볼 때 석암리 9호분 출토품의 제작 시기는 후한 초인 기원후 1세기 초로 편년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유물에서 사용흔이 확인되어 피장자가 생전에 사용하던 것을 전 세기간 없이 부장하였을 가능성이 크며, 또한 이러한 물품은 무덤에 부장하기 위해 입수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한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세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석암리 9호분이 조사되었던 20세기 초는 중국에서의 고고학적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때로 석암리 9호분 출토품을 비롯한 낙랑무덤 출토품의 성격을 제대로 검토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 중국에서 진한대秦漢代 무덤을 비롯한 고고학 조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최근에는 몽골에서의 흉노 무덤 발굴조사 역시 활발해지면서 낙랑군이 설치·운영되었던 당시 한나라 및 한을 둘러싼 주변 지역의 물질문화 양상이 보다 상세하게 밝혀지고 있다. 형태나 세부문양 등에 의해 다양한 제작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결과 기물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지역과 직접 교류·교역하였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석암리 9호분 출토품 중 청동용기 및 칠기 일부를 중국 한대 무덤 출토품과 비교하여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들이 낙랑 지역으로 유입된 경위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2. 평양 석암리 9호분 출토 청동용기의 제작지 및 유입경위 검토

청동용기는 목곽 북쪽벽을 따라 동서로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다. 서쪽에서부터 청동박산로靑銅博山爐와 청동부靑銅釜, 청동온주준靑銅溫酒樽, 청동정靑銅鼎, 그리고 청동정의 내부에서 청동형靑銅甗이, 동쪽으로 금동소호金銅小壺, 청동반靑銅盤과 그 안에 놓인 청동종靑銅鍾의 순서로 총 8점 출토되었다. 이는 이른바 제사용기의 기능이 강하였던 상대商代 청동기의 전통에서 벗어나 실용기가 주를 이루는 이른바 ‘한식청동기漢式靑銅器’를 대표하는 기종의 일부로, 기능에 따라 취사기炊事器 또는 식기食器(정鼎, 부釜), 주기酒器(온주준溫酒樽, 종鍾, 형甗, 소호小壺), 일상용기(박산로博山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한대에 유행하였던 청동기 표면을 음각하여 문양을 새긴 각문동기刻紋銅器인 청동온주준과 금동소호의 형태, 제작기법 등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1) 청동온주준靑銅溫酒樽(본관4731)



도 2. 석암리 9호분 출토 청동온주준

청동온주준은 한대 무덤에서 보편적으로 확인되는 청동용기지만, 세부적인 형태에서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석암리 9호분 출토 청동온주준은 뚜껑 윗부분이 편평하고 동체부의 무문 양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후한 초에 제작된 청동온주준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도 2).



도 3. 청동온주준 뚜껑 윗면 문양 세부

이 청동온주준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뚜껑 윗면에 새겨진 문양이다(도 3). 뚜껑의 윗면은 돌출한 양각선에 의해서 크게 내구內區와 외구外區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돌출한 양각선을 따라 세 마리의 양 장식이 외구 부분에 등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다. 양각선 안쪽의 내구에는 중앙의 둥근 꼭지와 고리를 중심으로 4엽의 화문花文을 새기고, 꽃잎과 꽃잎 사이에 각각 한 마리씩, 모두 네 마리의 동물을 시문하였다. 동물 문양 내부에도 짧은 선을 반복적으로 새겨 몸의 털을 세밀하게 표현하였다. 동물문양은 두 마리의 새와 두 마리의 네 발 달린 동물을 교대로 배치하였는데, 네 발 달린 동물 중 하나는 머리 중앙에 삼각형의 뿔이 달린 사슴 얼굴 모양을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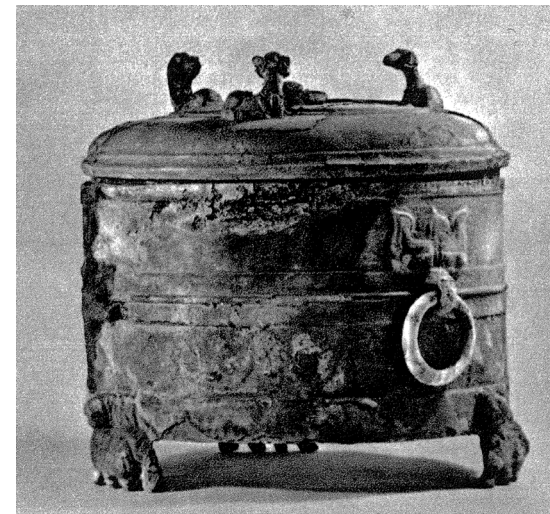
석암리 9호분 출토 청동온주준과 가장 비슷한 형태의 청동기는 중국의 남부 지역인 광둥성[廣東省] 광저우[廣州] 한묘漢墓 M5003호분에서 출토된 것이다(도 4).¹⁰⁾ 또한 사엽문四葉文과 인면수를 비롯한 동물 도상은 광둥성이나 광시성[廣西省], 장시성[江西省] 등 중국 남부 지역에서 출토된 청동기의 문양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광시성 허푸[合浦] 무주링[母猪岭] 유적, 장시성 난창[南昌] 징자산[京家山] 한묘漢墓 등이 있다(도 5).¹¹⁾ 이 유적에서 출토된 청동

10 吴小平, 『汉代青铜容器的考古学研究』(长沙: 岳麓书社出版, 2005), p.128.

11 江西省文物工作队南昌博物院(1989); 广西文物工作队·合浦县博物馆(1998); 广西壮族自治区文物考古写作小组(1972); 广西合浦县博物馆, 『广西合浦县母猪岭汉墓的发掘』, 『考古』2007-2(北京: 科学出版社, 2007).

용기의 기종은 온주준에 국한되지 않고 청동반과 청동승반靑銅承盤, 청동찬靑銅簋 등으로 다양한데, 기종에 상관없이 이러한 조합의 문양이 많이 적용되어 중국 남부 지역의 독특한 청동기 문양 구성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양의 특징으로 볼 때 석암리 9호분 출토 청동온주준은 광둥성 등과 같은 중국 남부 지역에서 제작된 것이 입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뚜껑 내구 안의 문양은 모두 강철제의 날카로운 도구로 금속을 파새김하는 음각기법으로 시문되었다. 음각기법은 전국시대 말기경부터 드물게 사용되기 시작하여 한대에 중국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유행했다고 한다.¹²⁾ 중국에서는 이러한 음각기법을 ‘첨각화문기법’ 또는 ‘각문기법’이라 부르고 이 기법이 적용된 청동기를 ‘각문동기刻紋銅器’로 분류하고 있다.



도 4. 광둥성 광저우 한묘 M5003호 출토 청동온주준(광저우시 문물관리위원회·광저우시박물관 1981: 도판 165)



도 5. 광시성 허푸 무주링 유적 출토 청동승반(광시허푸현박물관 2007: 도 17)

중국 한대의 각문동기는 크게 중원계中原系와 서남계西南系(전계滇系), 영남계岭南系¹³⁾로 구분할 수 있다.¹⁴⁾ 각 지역에서 확인되는 각문동기는 문양 시문 방법과 문양 종류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데, 중원계 각문동기의 문양은 운기문이 위주이며, 금동제가 많다. 또한 축조기법을 주로 사용하여 시문한다는 특징이 있다. 서남계(전계) 각문동기는 사실적인 동물 문양이 주를

12 蔣廷瑜, 『漢代鑿刻花紋銅器研究』, 『考古學報』2002-3(北京: 考古雜誌社, 2002); 吴小平, 『汉代铜壶的类型学研究』, 『考古學報』2007-1(北京: 考古雜誌社, 2007); 『漢代中原系刻紋銅器研究』, 『考古與文物』(西安: 陝西省考古研究所, 2014. 4).

13 중국의 영남岭南은 지금의 푸젠성[福建省], 광둥성[廣東省], 광시성[廣西省] 일대이다.

14 吴小平, 앞의 논문(2014).

이루며, 영남계 각문동기는 복잡한 기하학적 문양과 동물문양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많다. 석암리 9호분 출토 청동온주준의 문양은 전형적인 영남계 각문동기에 속하는 것이다.

중국 남부 지역에서 영남계 각문동기의 분포 양상을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원구이[雲貴] 지역¹⁵⁾은 영남 지역과 바로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력자의 무덤에서만 소수가 확인되는 등 발견 예가 매우 적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영남계 각문동기가 출토된 원구이 지역 무덤은 이 지역의 정치문화적 중심 지역에 집중해 있으며, 피장자는 고위급 관리 또는 후국 왕실 일원으로, 소유 가능 계층에 제한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⁶⁾ 이는 파촉[巴蜀]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이 원구이 지역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며, 따라서 영남계 각문동기는 위세품의 한 종류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2) 금동소호金銅小壺(본관4734)



도 6. 석암리 9호분 출토 금동소호



도 7. 금동소호 운기문 축조기법 세부

목곽 북벽의 중앙에서 출토된 높이 10.6cm의 금동소호는 청동을 주조하여 만든 후 표면을 마연하고 문양을 새기고 도금을 해서 완성하였다(도 6). 표면에서는 제작과 관련 있는 방형의 형지흔이 다수 확인된다. 형지흔의 크기는 0.2×0.2cm~0.3×0.3cm로 매우 작다.

금동소호는 정甕이나 부甕, 준甕과 같이 일반적으로 많이 확인되는 기종은 아니다. 석암리 9호분 출토 금동소호는 표면에 도금을 하였는데, 한대에는 이전 시기와 달리 도금이나 상감 등의 제작 기법을 접목한 고급 청동기가 많이 만들어졌다. 도금은 전국시대에도 유행하였으나 널리 퍼진 것은 한대에 들어서이며, 한 무제 시기와 왕망대(재위 기원후 9-23)에 가장 성행하였다. 한대에 제작된 도금 청동기는 금제품과 동일한 기종이 거의 없어, 금제품의 대체품이 아

15 원난성[雲南省]과 구이저우성[貴州省].

16 吳小平, 앞의 논문(2014).

닌 청동기의 장식성을 강조한 독립적인 제작품으로 볼 수 있으며,¹⁷⁾ 석암리 9호분 출토 금동소호 역시 고급 용기에 속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금동소호는 표면 전체에 문양을 새겼다. 문양은 모두 축조기법鑄脚技法을 이용하여 새긴 것이다. 축조기법은 삼각형의 날을 가진 정을 이용하여 금속 표면을 쪼아서 문양을 새기는 기법으로, 확대해 보면 삼각형의 정 자국이 보이지만, 멀리서 보면 짧은 삼각형의 자국이 이어져 가느다란 선으로 보이게 된다(도 7).



도 8. 금동소호 동체부 거치문 및 운기문 세부



도 9. 금동소호 동체부 동문문양 세부



17 谷豊信, 「秦漢時代の金屬工藝」, 『世界美術大全集 秦・漢・東洋編 2』(東京: 小學館, 1998).

동최대경 위치인 동체부 중앙과 굽 부분에 삼각형을 이어서 거치문을 새기고, 거치문 대 사이에는 덩굴문에 가까운 운기문雲氣文으로 가득 채웠다(도 8). 동체부 상부에 있는 운기문 사이사이에는 동물 세 마리를 시문하였다. 모두 네 발 달린 짐승이며, 형태는 각각 다르다. 실제 동물이 아니라 당시 상서롭게 여기던 신수 또는 상상 속의 신화적 동물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도 9).

이 금동소호는 축조기법을 사용하여 주문양으로 운기문을 새기고 도금한 것으로, 문양 구성으로 볼 때 앞에서 살펴 본 한대 각문동기 중 중원계에 속하는 것이다. 중국 한대 각문동기 중 중원계 각문동기의 주요 특징은 운기문 위주의 문양 구성에 축조기법과 도금기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전한 말~후한 초에 유행하였고 후한 중후기에 들어 급감하는 양상을 보인다. 중원계 각문동기는 문양 형태나 구성, 문양이 시문된 위치(높이) 등이 거의 동일하여 동일한 제작지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¹⁸⁾ 또한 중원계 각문동기가 출토된 고분은 대체로 후국의 왕묘급 또는 군의 1급 관리의 무덤으로 비정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도 10. 평상베이 1호분 출토 청동소호(四川大学历史文化学院考古系·四川大学考古学国家级实验教学示范中心·重庆市文物局·云阳县文物管理所 2018)

이러한 금동소호는 낙랑 무덤 중에서 석암리 9호분 이외에는 아직까지 출토 예가 없으며, 중국의 한대 무덤에서도 출토 예가 많지는 않다. 최근 쓰촨성(四川省) 충칭시(重慶市) 윈양현(雲陽縣) 평상베이(風箱背) 1호분에서 석암리 9호분 출토 금동소호와 매우 유사한 예가 출토되었

18 吴小平, 앞의 논문(2014).

다(그림 10).¹⁹⁾ 평상베이 1호분 출토 청동소호는 타호唾壺로 소개되었는데, 크기는 기고 8.9cm, 구경 8.5cm, 동최대경 9.4cm로 석암리 9호분 출토품에 비해 조금 작지만 거의 동일하다. 또한 삼각거치문 외에 능형문이나 사격자문과 같은 문양이 더 사용되었고 운기문은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석암리 9호분 청동소호와 세부적인 차이가 있으나, 구연부와 동체부, 굽 부분에 기하학적 문양을 새기고 동체부에 3개의 신수문神獸文을 새겼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3. 평양 석암리 9호분 출토 칠기의 제작지 및 유입경위 검토

석암리 9호분에서는 칠반漆盤과 칠이배漆耳杯, 칠상漆床, 칠기 뚜껑[漆蓋], 칠완漆盥 등 다양한 종류의 칠기 29점이 출토되었다. 대부분 목관과 목곽 서벽 사이의 일정한 범위 내에 밀집되어 있었다. 칠기의 대부분은 구연부 테두리나 이부耳部를 금동테로 감싼 금구칠기金鉤漆器이다. 그러나 이 중에서 전체적인 형태나 문양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칠반 3점과 칠이배 일부, 칠상 정도이다. 여기에서는 명문 칠반과 칠상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칠반漆盤(본관4796, 본관4798)

석암리 9호분에서는 2점의 명문 칠반이 출토되었다(도 11). 크기와 형태, 문양이 거의 동일하며, 밖으로 꺾인 구연부의 뒷면에 가는 선으로 명문이 새겨져 있어 제작지와 제작시기, 제작 목적 등과 같은 이 칠반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도 11. 석암리 9호분 출토 명문칠반(좌: 본관4796, 우: 본관47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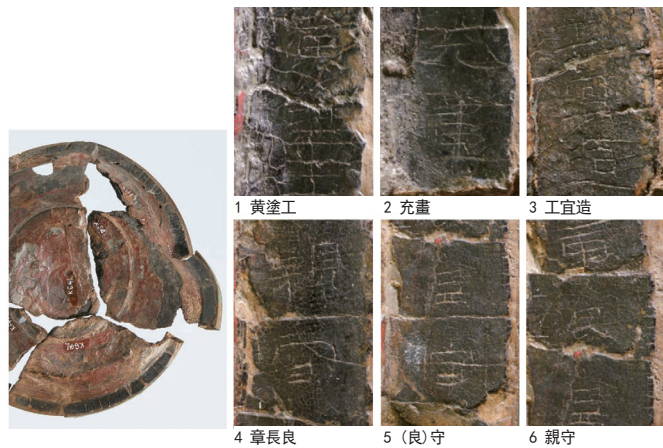
19 四川大学历史文化学院考古系·四川大学考古学国家级实验教学示范中心·重庆市文物局·云阳县文物管理所, 「重庆云阳风箱背一号汉墓」, 『考古学报』2018-4(北京: 考古杂志社, 2018).

본관4796과 본관4798 칠반에 새겨진 명문은 각각 아래와 같다.²⁰⁾

(1) 본관4796(도 12)

居攝三[年], 蜀[郡]西工造, [乘]輿/髹澣畫紵黃鉤果盤. 髹工廣, 上工廣, 銅鉤黃塗工, 充, 畫/工廣, 工豐, 清工平, 造工宜造, 護/工卒史章, 長良, 守丞巨, 掾親, 守令史嚴主

거섭3년(기원후 8) 축군 서공 승여휴주화저황구과반. 휴공 광, 상공 광, 동구황도공, 충, 화공 광, 주공 풍, 청공 평, 조공 의 제작, 호공졸사 장, 장량, 수승 거, 연 친, 수령사 엄 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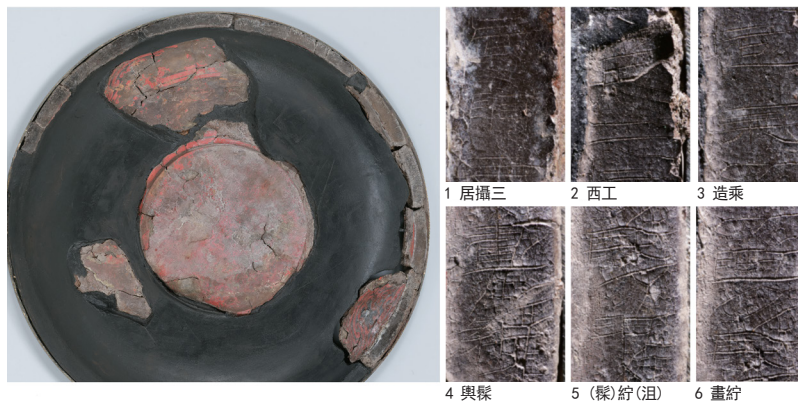


도 12. 칠반(본관4796) 명문 세부

(2) 본관4798(도 13)

居攝三年/ [蜀郡]西工造, 乘輿髹澣畫紵 ... / □, 造工弘造, 護工卒史嚴, 長...

거섭3년 축군 서공 제작 승여휴모화저 ... □, 조공 홍, 호공졸사 엄,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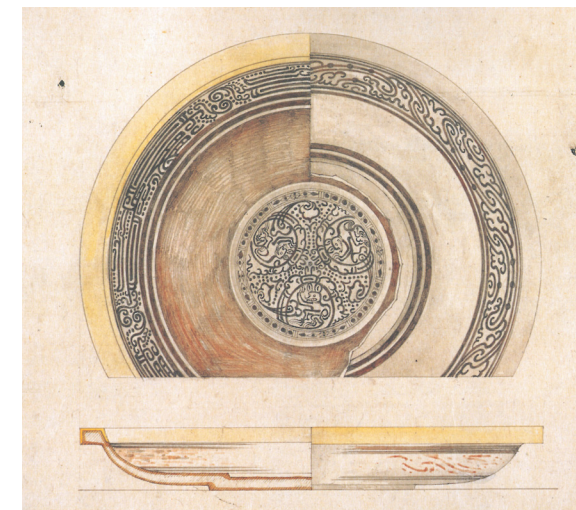


도 13. 칠반(본관4798) 명문 세부

‘거섭居攝’은 전한의 마지막 군주 유자孺子 영嬰(기원후 5~25)의 연호이다. 기원후 6년부터 8년까지 사용하였다. 거섭 3년은 기원후 8년으로 같은 해 11월 섭정攝政 왕망王莽(기원전 45~기원후 23)이 정권을 탈취하여 신을 건국하고 초시로 개원하면서 사용이 중단되었다. 따라서 이 칠반은 기원후 8년 1~11월 사이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축군蜀郡’은 오늘날 쓰촨성 청두[成都]이며 ‘서공西工’은 축군에 설치된 한대 관영수공업을 담당했던 공관工官의 명칭이다. 축군의 공관은 문제文帝부터 무제武帝 초기 사이에 설치된 것인데, ‘삼공관三工官’ 가운데 하나로 칠기뿐 아니라 청동기 등 여러 고급 기물을 생산하며 명성을 떨쳤다.

‘승여乘輿’는 본래 ‘황제의 수레’라는 뜻이지만 ‘황제 또는 황실 제조품’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승여휴주화저황구과반乘輿髹澣畫紵黃鉤果盤’은 그릇 명칭이다. ‘황구’는 금동金銅과 같이 노란빛이 나는 금속을 사용했다는 뜻이다. ‘과반果盤’은 그릇의 종류이다. 한대 칠반의 명문에서 확인되는 그릇의 종류에는 ‘과반’과 ‘반반飯盤’, ‘두반斗盤’이 있다. 모두 식기食器의 일종인데, 과반과 반반이 많이 확인된다. ‘과반’이 ‘반반’보다 크기가 더 작은데, 한대에 공관에서 제작된 ‘승여’명 칠반(과반)의 용량은 대부분 “일두一斗”이며, 지름은 26~27cm가 많다. 다만 이 칠반(본관4796)의 지름은 일반적인 과반보다 작아 크기가 다른 ‘과반’도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칠반(본관4796) 명문에는 장인의 종류와 이름이 새겨져 있어 제작 공정을 추정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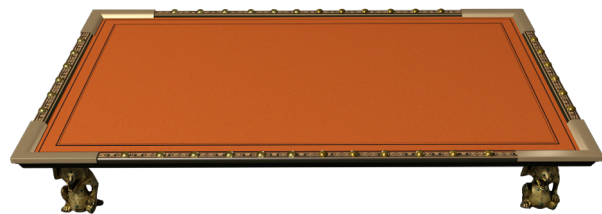
도 14. 칠반(본관4796) 복원도
(小場恒吉 2008: 제18도)

20 전체 명문은 일제강점기에 판독하여 『樂浪郡時代の遺蹟(圖版, 本文)』(1925, 1927)에 실린 것이며, 현재 판독 가능한 글자를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다.

한대 공관 제작 칠기의 가장 큰 특징은 생산의 분업화와 디자인의 규격화이다. 여러 가지 종류의 칠기 중에서도 칠반과 칠이배에서 이러한 특징을 잘 찾아볼 수 있는데, 내저면에 그려진 세 마리의 동물 문양, 즉 ‘삼수문 三獸文’은 공관에서 제작된 칠반을 대표하는 문양이다. ‘삼수문’은 기원 전후한 시기에 약 1세기가 넘는 오랜 기간 동안 공관 칠기의 주문양으로 사용되었다. 시기에 따라 변화 양상이 보이기도 하지만 제작 공방에 따라 양식적인 차이가 확연히 나타난다는 것이 특징이다. 중앙 공관인 고공, 공공, 우공에서는 가는 필치로 문양을 그렸으나, 축군 서공과 같은 지방 공관에서는 굵은 선[太線式]으로 문양을 그렸다. 그리고 중앙 공관 제작 품은 동물문 사이의 공간을 직선으로 구분한 것과 달리 지방 공관 칠반은 작은 점을 뿔뿔하게 채워넣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태선식의 문양은 축군 서공의 특징으로 ‘축화 蜀畫’라고도 부른다. 이러한 문양은 축군 서공의 칠기를 중앙 공관의 칠기와 구별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도입한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석암리 9호분 출토 칠반은 한대 축군 서공 칠반의 전형典型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도 14).

2) 금동웅각부칠상 金銅熊脚附漆床 (본관4799)

목관의 서쪽에서 발견된 장방형의 칠상이다. 발견 당시부터 목심 부분은 거의 다 사라진 상태였다. 현재 남아 있는 부속품은 곰모양의 금동제 상다리 4점, ‘ㄱ’자형 장식 금동테 4개, 단추형 장식구 36개로 모두 청동을 주조하여 도금한 금동제이다. 즉 이 칠상 역시 테두리를 도금한 금속으로 장식한 금구칠기에 속한다(도 15).



도 15. 석암리 9호분 출토 금동웅각부칠상 복원도

이 칠상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상 아랫부분에서 네 모서리를 받치고 있었던 곰모양의 금동제 상다리들이다. 이 곰모양 상다리들은 청동으로 주조하고 표면을 도금하여 제작한 것으로, 내부는 속이 비어 있다. 4점 중 3점의 상다리 내부에 목심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상과 상다리를 목심으로 고정했음을 알 수 있다(도 16).

곰 네 마리는 모두 비슷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기본적인 형태는 입을 벌리고 웅크리고 앉



도 16. 금동 곰모양 상다리

은 모양으로, 오른쪽 다리는 세우고 왼쪽 다리는 바닥으로 굽히고 있으며, 왼팔로 왼쪽 무릎을 지탱하고 오른팔은 머리 위로 들어서 상을 떠받치고 있다. 그러나 제작 방법 및 문양의 시문이나 장식에서 차이가 있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세부 문양의 표현과 조각 양식이 뛰어난 두 마리의 곰은 얼굴이나 이빨, 발톱 등을 자세하게 조각한 후 가는 정을 이용하여 몸 전체에 털모양을 새겼다. 또한 양쪽 귀와 눈, 가슴, 어깨, 팔에 각각 2개씩, 그리고 이마와 배꼽에 1개씩 총 14개의 작은 원형 홈을 파내고 그 안에 터키석을 감입하여 장식하였다(도 17).



도 17. 금동 곰모양 상다리의 두 가지 유형

이 칠상은 앞에서 살펴본 칠반과 달리 목심 부분이 남아있지 않아 제작지와 같은 직접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중국 한대 무덤에서 출토된 유사한 자료를 통해 제작지



도 18. 베이징 고궁박물관 소장 주준 세부



도 19. 허베이성 베이징 장차오 M1 출토 주준

와 제작시기 등을 추정해볼 수 있다. 이 칠상을 받치고 있는 금동 곰모양 상다리와 가장 유사한 예는 베이징 고궁박물관 소장 주준과 허베이성 한단[邯鄲] 베이장[北張] 장차오[莊橋] M1 출토 주준 등이 있다(도 18, 19). 이들은 모두 청동으로 주조한 후 도금한 것으로, 특히 주준을 받치고 있는 곰모양 다리의 형태나 세부 표현이 석암리 9호분 출토 칠상 다리와 거의 동일하다. 한 쪽 다리를 바닥에 받치고 반대쪽 다리를 세우고 같은 방향의 팔로 주준을 받치고 있는 모습이나, 온 몸을 짙은 선으로 시문하여 털의 모습을 표현하고 터키석을 감입하였으며, 벌리고 있는 입 내부를 붉게 칠한 모습까지 같은 곳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유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주준은 모두 명문이 새겨져 있어 제작지와 제작시기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베이징 고궁박물관 소장 주준에는 “**建武廿一年，蜀郡西工造乘輿**一斛承旋，雕蹲熊足，青碧閔瑰飾。銅承旋，徑二尺二寸。銅塗工崇，雕工業，煉工康，造工業造，護工卒史惲，長汜，丞萌，椽

巡，令史鄴主。”라는 명문이, 베이징 장차오 M1 출토 주준에는 “**建武廿三年，蜀郡西工造乘輿**大爵酒樽，內者室，銅工堂，金銀塗章，文工循，造工業，護工卒史口，長汜，守丞泛，椽習，令史摺主。”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즉 이 주준들은 후한 초인 기원후 45년(建武 20)과 기원후 47년(建武 21)에 촉군 서공에서 승여乘輿를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다. 따라서 이 주준과 형태나 제작 방법을 공유하고 있는 석암리 9호분 출토 금동용각부칠상 역시 후한 초 촉군서공蜀郡西工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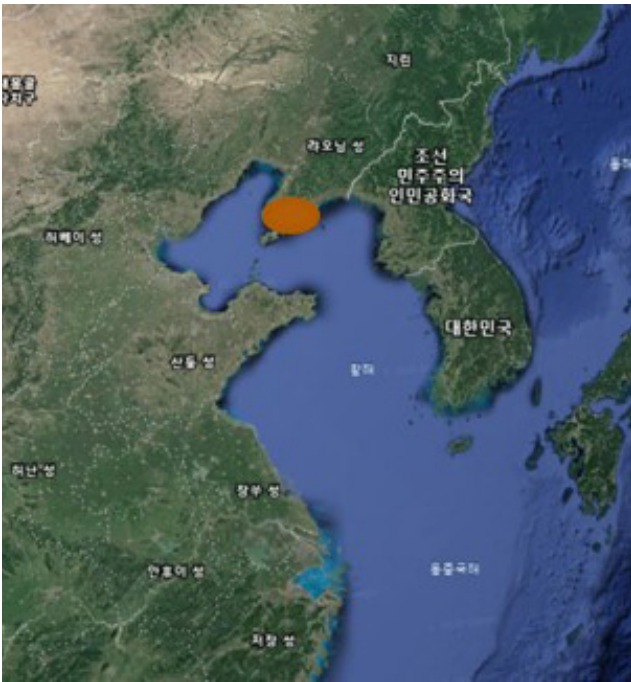
IV. 무덤 부장품으로 살펴본 낙랑군 교역 양상 검토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석암리 9호분에서 출토된 청동용기와 칠기의 제작지는 크게 영남嶺南 지역과 촉군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영남嶺南 지역 제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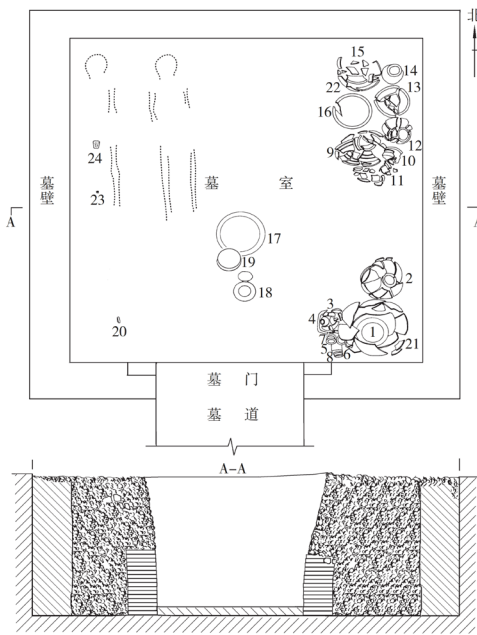
영남계 각문동기의 주 분포 지역인 광둥성, 광시성의 고분에서는 전한 말부터 이미 각문동기와 청자 인문도기印文陶器가 공반하고 있다. 그러나 낙랑 고분에서는 영남 지역에서 보이는 부장품 조합의 일체가 확인되지 않고, 그 중 일부인 청동용기만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구이 지역에서도 확인되고 있어 영남계 각문동기가 교역의 대상으로 활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 한대 무덤 자료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장쑤성[江蘇省] 지



도 20. 영청포 유적 위치

역에서 중원계와 영남계 유물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영남계 제작품이 광둥, 광시성 등과 같은 영남 지역에서 직접 유입되었을 수도 있으나, 장쑤성 지역으로 모인 여러 지역의 물품이 낙랑군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자료가 랴오닝성[遼寧省] 다렌 잉청쯔 76호분 출토품이다(도 20).²¹⁾



도 21. 잉청쯔 76호분 평·단면도 및 유물 출토 모습



도 22. 석암리 9호분 금제교구(좌) 및 잉청쯔 76호분 금제교구(우)

21 大连市文物考古研究所·大连营城子汉代墓地考古工作队, 「辽宁大连市营城子汉墓群2003M76 的发掘」, 『考古』(2019. 10).

잉청쯔 76호분은 이 지역 특유의 묘제인 패묘[冢]이며, 목곽 북동쪽에 치우쳐 2구를 안치한 합장묘이다. 부장품은 20건이 출토되었으며[토기 13건(17점), 청동기 4건, 청동인장 1건, 금제교구 1건, 옥제 1건], 대부분은 목곽 서벽을 따라 위치하고 있다(도 21). 이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유물은 석암리 9호분 출토품과 거의 동일한 형태의 마제형[馬蹄形] 금제교구이다(도 22). 동쪽 벽에 접하여 안치된 피장자의 허리 부분에서 출토되었는데, 고리 부분이 위를 향한 채 놓여 있어 허리띠에 착장한 채로 묻힌 것이 아니라 배 위에 얹어 부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고분에서 출토된 청동기로는 청동정과 청동반, 청동인장, 그리고 청동주준과 승반이 있다. 이 중 주준을 받치고 있었던 승반은 윗면에 능형문과 삼각거치문으로 구획을 나누고 내부에 사엽과 각종 동물 문양을 음각기법으로 새긴 영남계 청동기이다. 이것은 중국 동북지역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영남계 청동기로, 보고서에서는 허푸 지역에서 제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시기는 전한 말~후한 초로 편년하였다. 승반과 공반한 청동인장 역시 광시성 허푸 베이차강염퇴[北插江鹽堆] M1에서 출토된 ‘장함화[张咸和]’ 인印과 형태가 유사하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잉청쯔 76호분 출토품은 중국 남부지역에서 제작된 물품이 중국 동북지역 및 낙랑군 지역으로 유입되기까지의 간극을 설명해줄 수 있는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도 23. 잉청쯔 76호분 출토 청동 주준 및 승반

2. 촉군 지역 제작용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석암리 9호분에서 출토된 명문 칠반 및 금동용각부칠상, 그리고 금동소호는 모두 촉군 지역에서 제작되어 낙랑군 지역으로 유입된 것이다. 이 중 ‘승여’명 칠기의 제작지 및 분포지와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해당 유물의 낙랑군 지역 유입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도 24. 전한대 명문 칠기 및 공관 분포(Yan Liu 2019)

그동안 명문 칠기는 낙랑고분 출토품이 주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 승여명 칠기가 구이저우성[貴州省] 칭진[淸鎮], 양저우[揚州]한장구[邗江區], 허난성[河南省] 치현[杞縣], 후난성[湖南省] 용저우[永州], 간쑤성[甘肅省] 우웨이[武威], 그

22 刘 艳, 「由“乘輿”铭漆器看汉代的官府制作」, 『史论空间』 2012-8(2012).

리고 몽골 흉노 무덤에서도 출토되어,²³⁾ 분포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도 24). 그러나 이 지역들은 일부를 제외하고 한의 북, 서북, 남서, 남쪽의 변경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분포 범위가 확대되었지만, 낙랑 고분에서 출토된 명문 칠기가 70점, 그 중에서도 ‘승여’명 칠기는 35점으로 여전히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중원 이외의 지역에서 출토되는 ‘승여’명 칠기의 유입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우선 지방 군현의 관인이 수도에 가서 상계할 때 태관을 통해 사여받은 것으로 본 견해가 있다. 그러나 낙랑군 지역에서 출토된 승여명 칠기는 기원후 1세기 초(원시元始 3년, 원시 4년, 거섭 3년, 초시初始 1년 등)에 집중되는 특징이 있다. 이를 근거로 전한 말년에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왕망王莽 정권이 무휼 정책의 일환으로 낙랑군의 지배층에게 사여한 것으로 보거나,²⁴⁾ 후한대 회유 정책의 일환으로 보는 등²⁵⁾ 정치적 사여의 결과물로 본 견해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낙랑군 지역에서는 공관 제작 명문 칠기가 출현하는 시기 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넓고, 출토 빈도도 많기 때문에 정치적 사여의 측면에서만 살펴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²⁶⁾ 이러한 이유에서 승여명 칠기가 낙랑군에서 대량 발견되는 이유는 황실에 공납한 후의 잉여품이 중국인 관리나 상인에 의해 상품으로 팔려 나간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²⁷⁾

이 중에서 공관명이 알려져 있는 명문 칠기를 지역에 따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낙랑군 지역에서 출토된 명문 칠기 중, 승여명 칠기의 수량은 35점이다. 제작지가 명문으로 남아있는 경우 촉군서공 제작품이 37기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광한군공관廣漢郡工官²⁸⁾으로 쓰촨성 일대 공관에서 제작된 것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한다. 낙랑군 이외에 쓰촨성에서 인접한 지역인 구이저우성에서도 광한군공관과 촉군서공 제작품이 다수를 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창강[長江]을 따라 이어지는 서쪽 지역인 후난성과 장쑤성에서는 지방공관인 광한군공관과 중앙공관인 공공供工, 고공考工 제작품이 비슷한 비율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반해 북쪽에 위치한 간쑤성 지역과 몽골 흉노 무덤에서는 중앙공관인 고공 제작품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23 刘 艳, 앞의 논문(2012).

24 町田 章, 「漢代紀年銘漆器聚成」, 『古代東アジアの裝飾墓』(京都: 同朋舎, 1987).

25 豊岡卓之, 「時は大海を渡る」, 『考古學ジャーナル』 325(1990).

26 오영찬, 앞의 논문(2013).

27 이경미, 「낙랑고분출토 칠기에 대한 일고찰」, 『한국상고사학보』 11(1992).

28 오늘의 쓰촨성 뎬양[綿陽] 일대.

표 1. 지역별 명문 칠기 분류

지역	'乘輿'명 칠기 수량	기년명 칠기 수량	公官 종류					
			蜀郡西工	廣漢郡工官	供工	考工	右工	미상
낙랑군	35	70	37	9	7	1	1	15
구이저우성 貴州省	4	7	1	4	-	-	-	2
후난성 湖南省	4	7	-	3	2	2	-	-
장쑤성 江蘇省	1	4	-	2	2	-	-	-
허난성 河南省	1	1	-	1	-	-	-	-
간쑤성 甘肅省	2	2	-	-	-	2	-	-
홍노	3	6	1	-	-	4	-	1
합계	50	97	39	19	11	9	1	18

확실히 각 지역은 특정 공방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그러나 낙랑군 지역에서 출토된 명문칠기가 모두 정치적 이유에 의해 유입된 것으로 보기에 낙랑군 지역이 다른 군현, 특히 변군 중에서 한의 입장에서 농치기 아쉬운 군사적, 경제적 거점이라거나 혹은 다른 군현에 비해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만큼 정치적 동요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석암리 9호분의 경우와 같이 매우 넓은 시간폭을 가진 기년명 칠기가 다수 출토되는 고분의 존재로 볼 때 낙랑군 사회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칠기에 대한 선호 경향이 높았으며, 특정 집단이 오랫동안 전세, 유지하며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외에 한의 중앙에서 멀리 위치한 군국에서 징수한 조세는 이동하는 장거리 운송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낮추기 위해 중앙으로 수송하지 않고 중앙 직속의 생산 조직인 공관을 매개로 인근의 군국으로 직접 분배하고 남은 재원을 다시 군고郡庫에 보관하는 등 전국의 물류를 조정한 결과 또는 중국 내지 상인들의 활동 결과일 가능성을 제기한 견해가 주목된다.²⁹⁾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낙랑군 지역에서 출토되는 특정 공관 제작 명문 칠기의 집중 양상은 낙랑군 내부의 적극적인 수요와 더불어 한대에 형성되어 있었던 물류망을 통한 물류의 이동이 결합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29 김병준, 「중국고대 簡牘자료를 통해 본 낙랑군의 군현지배」, 『역사학보』 189(2006), pp.139-173.

3. 간독 자료와의 비교 검토

중국 내의 진한대 무덤에서는 당대에 작성된 간독자료가 출토되는 예가 많아 사서의 기록을 보완 또는 수정하고 있다. 이러한 간독 중, 낙랑군으로의 물자 유입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줄 만한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금의 장쑤성 일대에 위치하였던 동해군東海郡에서 출토된 『운만한간尹灣漢牘』에는 ‘승여’명 물품의 유통 및 이동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있다. 동해군은 염관鹽官과 철관鐵官이 각각 3개, 2개씩 설치되었던 곳이다. 또한 운만한간은 기원전 15~10년에서 멀지 않은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기원후 1세기 초인 석암리 9호분 축조 시기와 부합한다.

『운만한간』 중 ‘동해군하할장리부재서명적東海郡下轄長吏不在署名籍’의 ‘무고영시4년병차기집부武庫永始四年兵車器集簿’에는 기원전 13년 동해군 무고에 수장된 병차兵車, 노駝, 궁弓, 시矢, 검劍, 과戈 등을 비롯한 각종 무기류의 목록이 기재되어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기물의 명칭 앞에 ‘乘輿’를 관冠한 것이 58종 114,693건, 그 표시가 없는 것은 총 182종 23,153,794건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이다. ‘승여’가 표기된 기물은 본래 천자의 어용御用에 국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방대한 양의 무기류에 ‘승여’가 표기된 것은 천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기물 또는 더 광범위한 의미로 중앙 정부에 직접 귀속된 기물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승여’로 분류된 것은 천자 또는 중앙 정부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 즉 언제든지 중앙 정부가 필요한 지역으로 재분배할 수 있는 물품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³⁰⁾

이 외에 『거연한간居延漢簡』에는 낙랑과 요동, 임회군臨淮郡(현재의 장쑤성 쑤첸宿遷 일대)이 황해 연안과 발해만을 따라 밀접히 교류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³¹⁾ 또한 중국 강남의 관재가 낙랑 지역까지 운반되었다는 사실로 볼 때 이 해로를 통한 교류의 존재를 상정할 수밖에 없으며, 그 중심지역을 장쑤성, 산둥성 일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한대에 지역별로 파견된 장리의 출신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산둥성 칭저우靑州, 장쑤성 쉬저우徐州 출신의 낙랑군 장리도 많았을 것으로 본 견해³²⁾를 고려하면 중국 서쪽 해안 지역과 낙랑군 지역 간의 활발한 인적, 물적 교류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30 이성규, 「전한말 지방자원의 동원과 배분-운만한간 ‘東海郡下轄長吏不在署名籍’의 분석」, 『역사와 세계』 23(1999).

31 이성규, 「중국 군현으로서의 낙랑」, 『낙랑 문화 연구』(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6).

32 이성규, 위의 책(2006).

4. 교역로의 추정

한대에는 이전시기부터 개척되어 온 연안항로의 사용이 한의 지리적 확장과 더불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연안항로로는 베트남 북부 항로~중국 남부 항로와 산둥성~한반도 서북부 지역의 연안항로가 있다.

베트남 북부~중국 남부지역에서는 항로를 따라 한 무제대에 교지군交趾郡, 주애군珠崖郡, 담이군儋耳郡, 서문현徐聞縣, 합포현合浦縣, 남해군南海郡-번우현番禺縣 등과 같은 군현이 설치되었다. 주애군과 담이군은 주애군으로 병합되었다가 결국 원제元帝(재위 기원전 48~33) 시기에 폐지되었다. 이 두 군에 대한 지배를 포기한 이후 동남아시아에서 교지군을 거쳐 중국 내지로 들어가는 루트가 바뀌었는데, 즉 기존의 광저우[廣州]를 거쳐 내지로 들어가는 루트 대신, 허푸로 들어가 옥림군郁林郡(광시성 난닝[南寧]) 그리고 장사국長沙國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만들어졌다.³³⁾

산둥성에서 한반도 서북부 지역으로 이어지는 연안항로는 '산둥반도 ↔ 마오다오열도[廟島列島] ↔ 요동반도 ↔ 창산군도[長山群島] ↔ 한반도 서북부 지역'으로 이어져 있었다. 한반도의 서해 연안을 지나 압록강 하구에서 랴오둥반도의 동부연안을 따라 랴오둥반도 남단 다롄[大連]으로 이어지는 항로가 개설된 시기는 지금까지의 고고자료로 보면 대체로 기원전 3세기 3/4분기 무렵으로 비정된다. 이 항선은 이후 기원전 109년 한 무제의 고조선 공략 시 수군 함대의 이동로로 채택될 정도로 정착되며,³⁴⁾ 조선시대인 17세기에도 창산군도의 스청도와 창산도를 거쳐 마오다오열도와 산둥성으로 이어지는 항로가 사용될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된 연안항로이다.³⁵⁾

이러한 연안항로의 존재를 고려할 때 낙랑군 지역에서 확인되는 영남계 청동기는 허푸현에서 옥림군과 장사국을 통해 내지로 들어오는 루트로 이동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랴오닝성 다롄 잉청쯔 76호분의 사례를 통해 영남 지역에서 시작된 물류의 루트 일부가 산둥성~한반도 서북부 지역으로 이어지는 연안항로를 통해 존재하였던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낙랑군 지역에서 확인되는 축군 지역 공관(축군서공, 광한군공관) 제작품 집중 현상은 축군과 중국 중·남부지역, 낙랑군으로 이어지는 물류 체계를 상정할 수 있게 해준다. 이 과정에서 영남계와 중원계 등 다양한 종류의 물품이 확인되는 장쑤성 지역 일대는 각종 산지

의 물류가 집중되는 교역의 중심지였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살펴본 한대 물류의 큰 흐름을 도식적으로 나타내면 <도 25>와 같다. 물론 구체적인 물품의 이동 원인과 루트는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낙랑군 지역에서 확인되는 중국 내지 제작품의 유입 과정을 중원으로부터의 하사 등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으로 설명해 온 지금까지의 연구와 달리, 한대에 중국을 비롯한 주변 지역을 잇는 물류 체계의 흐름을 상정하고 낙랑군 역시 이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고고학적으로 확인하는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도 25. 한대 물류 이동안

33 김병준, 「고대 동아시아의 해양 네트워크와 사행 교역」, 『한국상고사학보』 106, 2019; 박순발, 「백제의 해상 교통과 기항지-對中國 航路를 중심으로」, 『백제학보』 16, 2016.

34 박순발, 위의 논문(2016).

35 김병준, 위의 논문(2019).

V. 맺음말

지금까지 평양 석암리 9호분에서 출토된 청동용기와 칠기 일부 기종의 제작 기법상의 특징을 확인하고 제작지를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고고자료 및 간독자료를 검토하여 전한 말~후한 초 낙랑군 지역으로 유입된 물품의 교역로를 복원해 보았다. 그 결과 축군 지역 및 중국 영남 지역에서 시작되어 중국 내의 거점들을 통과한 후 장쑤성 지역을 거쳐 산둥성에서 서북한 지역까지 이어져 있는 연안항로를 통하는 교역로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한대에 실제로 존재하였을 교역로 중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이것으로 낙랑군과 중국 지역의 물류 체계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석암리 9호분이라는 하나의 무덤 부장품 안에서도 다양한 제작지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부장품의 종류에 따른 각각의 유입 경위를 상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구분의 시작점은 공관^{工官} 제작품과 비공관^{非工官} 제작품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다. 공관 제작품의 경우에는 정치 권력이 완전히 배제된 순수한 경제적 교역을 상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즉 고비용을 감내하면서까지 이러한 기물들을 제작하였던 이유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외는 중앙 권력에 의해 통제되지 않은, 즉 상품 판매가 가능한 물품들이다. 여기에는 일상용기나 장신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대에 중국 전역에서 유행하였던 매미모양의 옥함은 제후나 고급 관리의 무덤인 대형무덤뿐만 아니라 경제적 능력이 있는 서민의 무덤인 중소형무덤에도 부장되어 있다. 즉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장례 용품이었으며, 민간에서 구매가 이루어졌던 기록이 남아 있기도 하다. 이러한 예로 볼 때 한대에 이미 상품 판매와 구매라는 순수한 경제적 의미의 교역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물품의 종류에 따라 정치권력에 의한 유입과 경제적, 그리고 개별적 교역에 의한 유입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 낙랑군의 내부적 요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낙랑군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수의 명문 칠기, 그 중에서도 특히 ‘승여’명 칠기가 가장 많이 출토되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중원에서의 일방적인 하사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낙랑무덤 출토품의 대부분이 한에서 제작된 것이지만 중국 내의 상황과 차이도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중국 내에서는 전한 말경부터 이미 청동기의 수량이 줄어들고 동시에 소성도가 높고 타날문이 새겨진 도기의 부장이 많이 이루어지는 현상이 확인된다. 그러나 낙랑 지역에서는 도기가 부장되는 예는 거의 없으며, 청동용기나 칠기의 부장 역시 더 오래 지속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이

러한 특징의 원인은 낙랑군 내부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낙랑군 지역에서 출토되는 유물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연구의 대부분은 금제교구나 칠기 등과 같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유물 일부에 한정되어 왔다. 그 결과 당시에 존재하였을 다양한 교역 방식의 가능성은 모두 제거된 채 정치적 해석만이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중국 및 몽골 지역 등 다양한 지역 자료와의 비교 검토를 통해 낙랑 고분 출토품의 제작지나 제작시기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낙랑군이 존속한 시기 전체의 양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 기원전후한 시기인 후한 초에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낙랑과 한으로 대표되는 중국 세력과의 교역 관계는 양한^{兩漢}, 그리고 위진대^{魏晉代}에 걸쳐 장기간 지속되었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과 그 원인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낙랑은 중국의 여러 군현 중의 하나라는 역사적 사실을 고려할 때 중국과 다른 군현 간의 교역 관계에 대한 비교 검토 역시 필수 과제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 연구가 축적된다면 낙랑군의 교역 양상에 대한 입체적인 복원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국립중앙박물관, 『(일제강점기 자료조사보고 30집) 평양 석암리 9호분』, 2018.

김병준, 「중국고대 簡牘자료를 통해 본 낙랑군의 군현지배」, 『역사학보』 189, 2006.

_____, 「敦煌 懸泉置漢簡에 보이는 한대 변경무역 -三韓과 樂浪郡의 무역과 관련하여」, 『韓國 出土外來遺物: 初期鐵器-三國時代』, 대전: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2011.

_____, 「中國古代における對外貿易のかたち -敦煌懸泉置漢簡を手掛かりとして」, 『東方學報』 91, 2016.

_____, 「고대 동아시아의 해양 네트워크와 사행 교역」, 『한국상고사학보』 106, 2019.

김장석·권오영, 『물류시스템과 대외교류의 정치경제학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 『한성기 백제의 물류시스템과 대외교섭』, 한신대학교학술원 편, 서울: 학연문화사, 2004.

김창석, 「고구려 초·중기의 對中 교섭과 교역」, 『신라문화』 24, 2004.

박순발, 「백제의 해상 교통과 기항지-對 中國 航路를 중심으로」, 『백제학보』 16, 2016.

오영찬, 「위만조선 및 낙랑군과 진변한지역의 교섭」, 『이화사학연구』 47, 2013.

윤용구, 「삼한의 조공무역에 대한 일고찰-한대 낙랑군의 교역형태와 관련하여-」, 『역사학보』 162, 1999.

_____, 「고대중국의 동이관과 고구려-동이교위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55, 2005.

이경미, 「낙랑고분출토 철기에 대한 일고찰」, 『한국상고사학보』 11, 1992.

이성규, 「전한말 지방자원의 동원과 배분-운만한간 ‘東海郡下轄長吏不在署名籍’의 분석」, 『역사와 세계』 23, 1999.

_____, 「중국 군현으로서의 낙랑」, 『낙랑 문화 연구』, 2006.

_____, 「前漢 內郡과 河西 4郡 간의 交易網 形成」, 『東洋史學研究』 122, 2013.

이현혜, 「삼한의 대외교역체계」, 『한국 고대의 생산과 교역』, 서울: 일조각, 1998.

宋眞, 「한대 통행증 제도와 상인의 이동」, 『동양사학연구』 92, 2005.

广西合浦县博物馆, 「广西合浦县母猪岭汉墓的发掘」, 『考古』 2007-2, 北京: 科学出版社, 2007.

大连市文物考古研究所·大连营城子汉代墓地考古工作队, 「辽宁大连市营城子汉墓群2003M76 的发掘」, 『考古』 2019-10, 北京: 科学出版社, 2019.

刘 艳, 「由“乘輿”铭漆器看汉代的官府制作」, 『史论空间』 2012-8, 2012.

四川大学历史文化学院考古系·四川大学考古学国家级实验教学示范中心·重庆市文物局·云阳县文物管理所, 「重庆云阳风箱背一号汉墓」, 『考古学报』 2018-4, 北京: 考古杂志社, 2018.

谷豊信, 「秦漢時代の金屬工藝」, 『世界美術大全集 秦・漢-東洋編 2』, 東京: 小學館, 1998.

吴小平, 『汉代青铜容器的考古学研究』, 長沙: 岳麓书社出版, 2005.

_____, 「汉代铜壶的类型学研究」, 『考古学报』 2007-1, 北京: 考古杂志社, 2007.

_____, 「漢代中原系刻紋銅器研究」, 『考古与文物』 2014-4, 西安: 陕西省考古研究所, 2014.

Yan Liu, 「由'乘輿'銘漆器」, 『History of Art and Design』 232, 2012.

_____, “Emblems of Power and Glory: The Han-Period Chinese Lacquer Wares Discovered in the Borderlands”, *Production, Distribution and Appreciation: New Aspects of East Asian Lacquer Ware*, Edited by Patricia Frick, Annette Kieser, Leiden, Boston: Brill, 2019.

町田 章, 「漢代紀年銘漆器聚成」, 『古代東アジアの裝飾墓』, 京都: 同朋舎, 1987.

蔣廷瑜, 「漢代鑿刻花紋銅器研究」, 『考古学报』 2002-3, 北京: 考古杂志社, 2002.

豊岡卓之, 「時は大海を渡る」, 『考古學ジャーナル』 325, 1990.

Abstract

Examination of Nangnang Commandery Trade
through Tomb Burial Goods

-Focusing on artifacts excavated from Seogam-ri Tomb No. 9 in Pyongyang-

Lee Nakyoung*

Various kinds of artifacts from the Han Dynasty have been excavated from the tombs of the Nangnang commandery(樂浪郡), which are concentrated in the Pyongyang area. Seogam-ri Tomb No. 9, the major tomb in the area, yielded gold belt buckles, lacquerware with inscriptions, various horse trappings, weapons, and vessels for everyday use. Based on the type and quantity of the burial goods, the tomb was considered to be that of the governor-general of Nangnang. That is, as a result of emphasizing the political fact that Nangnang was a commandery of the Han Dynasty, the Han items discovered in Nangnang have been perceived as items endowed by the Han from the Central Plain (Zhongyuan). From the 1950s, however, excavations of Han tombs in China greatly increased in number, providing the conditions for objective comparison and examination of the location of artifacts excavated from Nangnang tombs. Some bronze and lacquerware items excavated from Seogam-ri Tomb No. 9 were compared with materials from China, and as a result it was possible to work out the different production sites and routes of introduction to Nangnang according to type. That is, by examining archaeological materials and the writing on bamboo tablets it was possible to deduce the trade routes used to transport to the Nangnang commandery bronze items produced in

* Associate curator, Chuncheon National Museum

the Lingnan(岭南) region of china and items made at the government offices of the Shu commandery (Shujun, 蜀郡) through their respective distribution networks via coastal routes linking Jiangsu Province, which seems to have been a collection center, to Shandong Province and the western part of North Korea.

However, these presumed trade routes are just part of the many routes that existed at the time. To restore those trade routes more accurately, it is necessary to closely compare the Nangnang tomb artifacts with items excavated from Han tombs in China and estimate the different trade routes according to different types of items. In addition, it will be possible to go further than drawing lines on a map to represent those trade routes more accurately only when research is conducted on why the items concerned were brought to the Nangnang region.

Keyword

Nangnang Commandery(樂浪郡), Trade, Seogam-ri Tomb No. 9 in Pyongyang of archaeological materials, writing on bamboo tablets, coastal routes